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복선화음가〉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새로운 독법의 마련-

하윤섭\*

## || 차례 ||

1. 서론
2.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독법들
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여성의 ‘치산’
4. 환상과 적대 : 모순의 상상적 봉합
5. 남은 문제들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이 여성의 치산 행위에만 주목하여 이를 봉건주의의 해체적 징후 내지는 근대전환기의 변화된 현상으로 파악해 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조선 후기 들어 강화되어 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연계시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본 작품에 대한 그간의 독법들을 차례대로 살펴본 후, 이 작품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그 자체의 모순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모순의 지점들과 이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에게 치산의 책무가 부과되어 가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와 달리 사대부 남성들의 ‘不治産業’은 양반 남성이 지녀야 할 주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그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 강화된 중범적 질서의 전파에 따라 주자학적 제례의식의 준수 또한 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바, 치산하지 않는 것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자학적 제례의식의 설행은 서로 상충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치산의 책무는 여성에게로 전가되어 갔던 것이다. 4장에서는 <복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선화음가>에 드러나는 치산하는 여성의 형상이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에 따라 <복선화음가>는 福善이라는 관념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여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한 자각 없이 치산에 전념케 하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企圖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선화음가>에 나타나는 괴똥어미의 형상을 작자가 의도한 사회적 적대의 응축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은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상상적으로 봉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결론지었다.

주제어 : <복선화음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치산, 불치산업, 제례의식의 준수, 환상, 적대, 상상적 봉합

## 1. 서론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여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했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굶주려서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한 평생 과거(科擧)도 보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려오?’ 하였다. 허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 글읽기가 아직도 충분치 않소.’ 아내는, ‘그러면 공장이 노릇도 못하신단 말인가요?’ 허생이, ‘공장이 일을 애당초 배우지 못했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소?’ 아내는,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지요?’ 허생은,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고서야 어찌 할 수 있겠소?’ 그제야 아내는 성을 내며 말하기를, ‘밤낮으로 글을 읽으면서 다만 배운 것이 ‘어찌할 수 있겠소’란 말입니까? 공장이 노릇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소?’ 하였다. 이에 허생은 책장을 덮고 일어서면서, ‘아아, 애석하구나. 내 본디 글을 읽을 제 십 년을 채우렷 했더니 이제 겨우 7년밖에 되지 않느군.’<sup>1)</sup>

1) 박지원, <허생전>, 『열하일기』.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고전번역총서 (<http://db.itkc.or.kr/>) 참조.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가운데 일부분이다. 전체 서사의 도입 부분이라 심상하게 넘길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다룰 관심사와는 무척이나 가깝기도 하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만 읽는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집안을 추슬러온 아내의 모습.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가족 내의 전도된 성적 역할은 작품의 전개를 위해 작자가 축조한 세계인지, 아니면 당시의 일반적인 광경에 기인한 것인지. 양반인 남편에게 공장이와 장사치 일을 권하고, 급기야 ‘도둑질’과 같은 비윤리적인 단어들을 내뱉는 다소 과격한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한 고된 살림살이에 ‘도둑질’ 운운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허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 터인지. 짧은 단락을 통해 떠오르는 질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저 여성으로 하여금 견디게 만든 동력의 정체이다. 과연 신산한 삶의 고초들을 오랜 세월 견디게 해 준 것은 어떠한 희망과 기대였을까? 그리고 그러한 희망과 기대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허생전>으로부터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펼쳐지는 서사의 대부분이 허생의 파란만장한 치부 행위와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실천적 실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허생의 아내가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작품의 말미에 잠깐일 뿐, 그것도 오랜 세월동안 남편의 부채를 묵묵히 견디어 온 지극히 평범한 아낙의 모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허생의 아내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던, 그러나 그 결과만큼은 판이하게 달랐던 <복선화음가>의 여주인공이 바로 그이다.

부유한 집안의 여식이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서 자신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는 내용의 <복선화음가>는 현전하는 이본만 하더라도 80여 종을 상회할 정도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

한 이본 현황은 동 시기 풍류방을 중심으로 대중적 유행을 구가하고 있던 <처사가>의 이본이 35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대단한 유통성을 지녔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sup> 치밀한 내적 구성도, 그럴듯한 현실적 개연성도, 섬세한 인물의 형상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작품에 그토록 많은 독자들이 열광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분명 당시의 독자들이 지니고 있었을 모종의 현실적 결핍과 그로 인한 절절한 공감에 기인한 것일 터, 미진하나마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귀착지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선화음가>를 통해 해명해야 할 역사적 실재란 이 작품에 축조되어 있는 서사적 현실을 마치 경험적 현실처럼 받아들였던 작가와 독자들의 정신구조, 그와 같은 현실인식 속에 정후로 드러나는 억압된 무의식, 그리고 그와 같은 분열된 현실인식을 촉발하는 그들의 존재조건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연구사 검토부터 시작하여 가부장제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과 이를 상상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이 텍스트 속에 얼마나 치밀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피고자 한다.

## 2.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독법들

<복선화음가>는 조선 후기 가사의 여러 표정들을 내장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본 작품 하나에 부여된 규방가사, 여성가사, 서사가사, 서민가사 등의 장르적 타이틀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

2)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화사연구』 22, 민족문화사학회, 2003.

3)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p.128.

한다. 특히 최원식은 <상사별곡>·<노처녀가> 등과 같은 일련의 작품들을 본 작품과 병립하여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가사의 주요한 부면인 주경주의적 경향과 소설화 경향을 짚어 내고, 여기에 ‘반주자·반봉건’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하였다.<sup>4)</sup> 즉, <복선화음가>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후기 사회를 평민 의식의 성장과 봉건주의의 해체기로 진단하고, 그러한 편린들을 작품 속에서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이후 8~90년대를 거쳐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복선화음가>에 대한 연구들, 예를 들어 장정수(a)·김유경·이혜전·서영숙·최현재·함복희·전복규 등의 연구성과들은 모두 그 미세한 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원식의 논의를 그 기저에 깔고 있거나 혹은 그 자장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즉, <복선화음가>를 그보다 상위범주인 서사가사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그것이 담지한 서사성의 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산출된 가사작품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정지으려 한 것이다. 여기서 <복선화음가>를 위시하여 위의 논자들이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여러 작품들에 내재한 서사성의 실체와 그것의 시가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이에 대한 성과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거나와,<sup>6)</sup> 무엇보다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서사가사’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해 해당 연구자들이 그토록 골몰했던 이유가 자못 궁금하기 때문이다.

4)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 46, 창작과비평사, 1977. 참고로 논자가 언급한 <괴송어미전>은 <복선화음가>의 이본이다.

5) 장정수(a), 「서사가사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유경, 「서사가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혜전,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최현재, 「조선후기 서사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함복희, 「서사가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6) 성무경, 앞의 논문, pp.90~91 참조.

기실, 국문학 연구사를 주도해 온 그간의 화두가 ‘우리’문학의 근대문학으로의 발전을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것<sup>7)</sup>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정합적 설명의 한가운데에 소설이 있었음도 마찬가지이다.<sup>8)</sup> 傳·夢遊錄·野談 등의 諸 장르가 조선 후기 소설의 기원과 발생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불과했던 것인가를 자문하고, 그것을 소설의 기원, 나아가서는 근대와 민족에 대한 ‘편집증적 애착’으로 명명한 한 고전소설 연구자의 자성적 발언<sup>9)</sup>은 이와 같이 진행되어 온 국문학 연구사의 과민성·경직성에 대한 지적에 다름아니다. 조선 후기 가사, 좀더 좁혀서는 <북선화음가>의 서사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장르적 근대성을 지적해 온 그간의 논의들 역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 즉, 조선조 시가 장르의 양축에 자리하고 있는 가사 장르가 근대의 성립 또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 소설과 유사한 형태로 변이됨에 주목하여 그것으로부터 ‘육구하고 움직이는 평민적 세계관’의 지형<sup>10)</sup>, 나아가서는 봉건주의의 해체적 징후들을 읽어냈던 기존의 작업들은 그것이 산출된 시대의 주류적 담론이었던 ‘내재적 발전론’에 강하게 긴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간의 연구성과들에 부과한 이러한 혐의점들은 해당 논자들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도달한 궁극적 결론의 면면들에서도 확인된다. “향촌 사족층 여성들에 의해 창출되어 나온 여성영웅의 하나로서, 현실타개를 위한 여성들의 꿈과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sup>11)</sup>, “여아로 하여금 현실에 부딪

7) 정출현, 『고전소설 연구의 몇몇 국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187.

8) 물론 조선 후기 문학사가 소설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단일 장르 속에 내재해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져 온 근대성의 징표들, 예컨대 허구성·리얼리즘·육망에 대한 긍정·탈중세·자본주의 등이 조선 후기 문학사 구성의 기반이 되었음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9) 정출현, 위 논문, pp.187~192.

10) 이혜전, 위 논문, p.71.

혀 강하게 싸워 극복하는 여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sup>12)</sup>, “규범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경제를 인식하게 되는 작자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sup>13)</sup>, “여성 주인공의 치적에 서술의 대부분을 할애하되 주인공의 치적을 빛내기 위한 배경 인물로 간간히 시대 식구를 등장시키는, 철저하게 여성 중심적인 텍스트임이 드러난다”<sup>14)</sup>, “윤리적 건강성으로 무장하고 치산을 통해 고난의 현실을 헤쳐 나갔던 여성형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전환기 여성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근대적 욕망의 단초를 셈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등등의 언급에 주목해 보자. 한결같이 <복선화음가>의 여성 화자에 대해 중세적 억압을 뚫고 자유와 평등의 희망찬 근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모종의 ‘영웅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전복규는 『조선후기 가사의 근대의식 연구』라는 제명의 논고에서 본 작품을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근대성향, 곧 근대의식이 임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 사이의 시기에 태동하고 있었음’<sup>16)</sup>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든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문해 보아야 한다. 혹시 ‘노동/자본/화폐/근대/자유/평등’ 등과 같은 일련의 개념들이 ‘중세/남성/성리학’과 대비되는 ‘蓄財적 여성 화자’를 만나게 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 자체가 작품 이전에 선취된 이념들에 의해서 ‘먼저’ 해석된 것은 아닌지를, 그리고 근대적 맹아가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싹트고 있었다는 공유된 인식이 본 작

11)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p.50.

12) 이선애, 『복선화음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p.212.

13)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p.218.

14)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p.307.

15) 성무경, 앞의 논문, p.92.

16) 전복규, 『조선후기가사의 근대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32.

품에 대한 해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견인하게 된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복선화음가>에 대한 위와 같은 독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먼저, 조해숙은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 ‘여성의 주체 되기’, ‘소비 욕망의 이중성’, ‘가난을 통한 연대’ 등의 항목 아래 본 작품에 내재된 ‘근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는데,<sup>17)</sup> <복선화음가>가 창작·유통된 19세기를 어떠한 이론적 근거 없이 ‘근대전환기’로 명명한 것도 그러하거나와 ‘禍淫’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괴똥어미를 당대의 독자들이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참된 주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괴똥어미’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긴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보다는 ‘괴똥어미의 비천한 행위를 통해 인간적 우월감을 즐기고 괴똥어미를 맘껏 비난하면서 여성적 삶의 규율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을까?’<sup>18)</sup>라는 또 다른 추정이 당대의 실상에 좀더 부합할 듯하다.<sup>19)</sup> 조자현은 <복선화음가>에 대한 두 편의 논의를 통해 본 작품에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 대한 양반 여성의 자각 의식이 반영’<sup>20)</sup>되어 있으며, ‘치산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17)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기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18)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용부가>, <복선화음가>, <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pp.104~105.

19) 다음의 부분은 이러한 필자의 추정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딸아 딸아 아기딸아 / 복선화음(福善禍淫) 하는 법이 / 이를 보니 분명하다 / 저 건너 괴똥어미 / 너도 흠연(歛然) 안 보았나 / 허다 세간 포진천물(暴珍天物) / 남용남식(濫用濫食) 하고 나서 / 그 모양이 되었구나” 최태호,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2, p.69.

20) 조자현, 「<복선화음가>의 서술구조에 대한 화쟁기호학적 분석」,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p.397.

여성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sup>21)</sup>고 결론지었는데, <복선화음가>에 등장하는 노동하는 여성의 형상을 현대적 의미의 자각 의식 내지는 주체적인 행위로 명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설령 그렇게 이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제된 자각’ 내지는 ‘강제된 선택’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데, 요컨대 정해진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각과 선택 말이다.<sup>22)</sup>

한편, 위에서 소개한 그간의 주류적 담론들과 정반대의 독법을 제시하고 있는 성과들도 있어 주목을 요한다. 먼저 이형래는 지금까지 발굴된 <복선화음가>의 이본들이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 착목하고, 이를 다시 숙종조 이후 중앙 정계에서 배제된 영남 남인들의 현실적 처지와 연계시켜 해석하였다.<sup>23)</sup> 즉, 정치현실에서의 패퇴와 조선 후기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향촌에서의 권력 유지가 힘들게 된 영남 남인들이 여성에게 윤리적 복종 위에 적극적 경제행위를 통하여 치부할 것을 강요하려는 것이 본 작품의 주요 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무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선화음가>는 경상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전라 등 가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그것의 광포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sup>24)</sup> 또한 <복선화음가>의 창작 및 유통이 영남 남인 계열 문인들의 정치현실에서의 배제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소외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성에게 ‘治産’

21) 조자현,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 <복선화음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22) 슬라보예 지젝 저, 박대진 역, 『이라크 : 빌려온 항아리』, 도서출판 b, 2004.

23) 이형래, 『<복선화음가>의 존재의미와 쟁점적 문제』, 『문창어문논집』 41, 문창어문학회, 2004.

24) 최근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이본적 특성을 고찰한 윤주필에 의하면, <복선화음가>의 유통은 영남의 규방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중화된 독서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p.302.

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저간의 행태가 중앙의 관직을 독점하고 부귀를 향유하던 노론 벌열가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논자 자신이 괴퐁어미에게 건넸던 긍정적 시선들, 예를 들면, ‘친숙하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이웃집 아낙네의 모습’, ‘독자들에게 인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인물’<sup>25)</sup> 등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해서 논자의 이러한 시선은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인과적인 추정이라기보다는 선협적 전제에 기반한 인상적인 추정에 보다 가까울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을 당대의 독자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이입하여 그들 역시 괴퐁어미를 논자 자신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 단정해서는 곤란할 듯하다. 작품 속에 보이는 괴퐁어미의 행동들은 분명, 당시의 공동체 사회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혹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적지 않은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일탈적 행위였으며, 이 때문에 그녀는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본 작품을 보다 강화된 가부장제의 산물로 규정하고, 이를 세밀한 작품 읽기로 검증해 낸 장정수(b)·강명관의 논의는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본고 또한 이에 기대 바 크다. 먼저 장정수는 본 작품에 대해 여성들 자신이 시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유가적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치산을 통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실적인 체험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26)</sup> 강명관은 ‘<복선화음가>의 여성이 과연 남성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토대로 하여 이 작품의 궁극적 의도를 경제적 궁핍이 초래한 가부장

25) 이형래, 『<복선화음가>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50·p.54.

26) 장정수(b), 『<복선화음가> 연구』,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p.311.

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성에게 가부장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창작된 것으로 결론지었다.<sup>27)</sup>

이와 같은 견해에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본 작품을 ‘강화된 가부장제의 산물’과 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로 파악함으로써 본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질서 전반에 잠복해 있는 모순의 징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을 읽게 되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과 같이 가해/피해의 이분화된 구도를 벗어나기 힘들다. 주지하듯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는 특정한 성별을 가리지 않는바, 이러한 독법을 극대화시키게 될 경우 ‘가부장제 하의 모든 여성은 불행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나, 불행이나’와 같은 양자택일적 단정을 넘어 그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가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색하는 일일 것이다.

(비록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복선화음가>의 작가는 가난한 시맥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 치산의 책무가 여성에게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제 자체의 불가피한 모순, 그것도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균열의 지점들을 마치 현실에서의 억압된 경험이 꿈을 통해 응축되고 전치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치산에 무능한 가부장’이라는 작품 내적인 문제 이면에는 ‘가부장으로 하여금 치산에 무능하게끔 만든’ 가부장제 자체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서사의 열개에는 이러한 모순에 대처하는 당대인들의 심성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바, 이를

27)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 6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p.128.

통해 우리는 본 작품을 ‘남성중심주의의 여성에 대한 강요’<sup>28)</sup>와 같이 성적 대립에 기초한 특징의 독법을 넘어 가부장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러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 등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허생’의 몸과 마음은 마냥 편하기만 했을 터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 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여성의 ‘치산’

앞서 필자는 본 작품에 대해 경제적 궁핍과 가부장제의 강화라는 표면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 이 작품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자체의 모순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모순의 지점들과 이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본 작품이 부의 축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수용 가능한 추정과 여성에게 치산을 전달시키는 저간의 행태가 (일부 가난한 양반 가문뿐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화된 형태였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자체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필자 자신의 판단 때문이었다. 모든 양반가가 경제적 궁핍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을 터, 그렇다면 이 작품은 치산이라는 하나의 요인을 전면에 내세웠을 뿐 그 이면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보다 심층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독법의 마련을 위해 먼저 아래의 자료들에 주목해 보자.

---

28) 강명관, 앞의 논문, p.116.

- [1] 不治産業, 不事交遊 産業을 다스리지 않으며, 교류를 일삼지 않았  
 도다.  
 忘情榮利, 絕意冗憂 영리를 까마득히 잊고, 쓸데없는 우환을 완전  
 히 끊었도다.  
 水月襟懷, 文酒生涯 옷깃에 품은 물과 달, 글과 술로 보낸 나의 일생  
 十里湖山, 一壑鶯花 십리의 호수와 산, 골짜기의 피꼬리와 꽃들.<sup>29)</sup>

[2] 평생동안 産業을 다스리지 않았고, 힘을 쏟은 곳은 오직 선조를 봉숭하  
 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 뿐이었으니, 사묘를 창건하고 묘  
 의를 닦아 거행하였으며 예식들을 수합하였다.<sup>30)</sup>

[3]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産業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거처하는  
 집은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왔으며, 푸성귀와 거친 밥  
 조차도 제때 먹기 어려웠으나 그러한 상황을 매우 편안하게 여겼다. 그  
 의 학문은 경서를 기본으로 하여 그 근본을 다졌다.<sup>31)</sup>

[4] 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시탁이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군이 매우 기뻐하였다. 치산하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거업을 권하  
 지 않았다. 오직 서적을 사서 그에게 바탕을 삼게 하였으니 모두 경전과  
 성리의 책들이었다.<sup>32)</sup>

29) 이현석, <自贊>, 『游齋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56, 한국고전번역원, 1995, p.595.

30) 어유봉, <監役李公墓誌銘>, 『杞園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84, 한국고전번역원, 1997, p.288. “平生不治産業 而所致力者 唯奉先追遠之節 創建祠廟 修舉墓儀 悉合禮式”.

31) 윤동수, <學生柳公行狀>, 『敬庵遺稿』 권11, 『한국문집총간』 188, 한국고전번역원, 1997, p.506. “家甚貧 不治産業 所處之室 上雨傍風 蔬糲莫繼 而晏如也 其爲學也 本之經書 以立其根”.

32) 이재, <禦侮金君墓表>, 『陶菴集』 권39, 『한국문집총간』 195, 한국고전번역원, 1997, p.326. “君有子曰時鐸, 自少志學, 君甚喜之, 不令治產, 又不勸舉業 惟買書籍以資之 皆經傳性理之書”.

[1]의 자료는 유재 이현석(1647~1703)의 <자찬> 중 일부분이다. 제목을 의역하여 ‘스스로에게 보내는 찬사’ 정도로 읽는다면, 본 논문의 관심사와 더불어 自評의 첫째 조건이 ‘不治産業’이라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자. 이는 곧 참된 양반을 가르는 몇 가지 조건 중 일체의 경제적 행위에 몸담지 않는 것이 비교적 상위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2]의 자료는 기원 어유봉(1672~1744)이 쓴, 監役 벼슬을 지낸 李某에 대한 묘지명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亡者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 가운데 하나가 ‘평생동안 産業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류익서라는 지방의 한미한 사족을 평가하면서 윤동수(1674~1739)가 주안을 두었던 점은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업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며, [4] 또한 동일한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즉, 도암 이재(1680~1746)에게 남아 있는 金德俊의 덕목 중 한 가지는 바로 그의 아들에게 ‘치산하지 않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 후기 문집에 소재한 수많은 묘지명에서 묘지명의 대상에 대해 ‘不治産業’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구들로 채워진 경우는 도처에 산견된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기록들이 지닌 공통의 성격,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사후적 포장의 일환으로, 이러한 작업이 그에 대한 ‘기억’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더불어 묘지명이라는 것이 망자에 대한 추모와 추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가치들은 (실제 망자가 그러한 가치들을 체현했든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묘지명이 기록되었던 시기의 사회가 보편적으로 긍정하던, 그런 차원에서 권장하던 가치들이라는 점도 함께 주목하자.

기실 ‘기억’이란 실제 존재했던 수많은 사실들 중 일정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잔존한 것으로만 형성되며, 그러한 선택과 배제를 작동시키는 기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의 기억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기억의 주체가 발 딛고

있는 ‘현재’가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조선 후기 묘지명에서 흔히 발견되는 ‘不治産業’이라는 기억의 실질은 (그것의 실재 여부와는 별개로) ‘不治産業’이라는 덕목이 바람직한 양반상으로 인식되던 조선 후기 사회의 인식틀, 푸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에피스테메에 기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33)</sup> “세속에서는 학자가 치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 심히 가소롭다.”라는 간재 전우(1841~1922)의 전언<sup>34)</sup>은 이러한 필자의 추정을 보다 近似하게 뒷받침해 주는바,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당대의 가부장제 하에서 양반/남성이 지녀야 할 주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35)</sup>

물론 조선 전기 역시 성리학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었던 만큼 양반 남성의 치산 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不治産業’의 덕목을 표방하는 사례 역시 간혹 발견되곤 한다. 다만, “생산(生産)을 경영하는 등의 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된다.”<sup>36)</sup>라는 퇴계의 발언과 그 자신이 매우 적극적으로 치산에 임했던 실제의 정황<sup>37)</sup>을 감안해 보면 양반의 치산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의 강도는 후기에 비해 훨씬 덜했던 듯하다. 더구나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 예컨대 상속제도와 혼인제도의 변화, 입양의 확산이나 출가

33) 아스만 지음, 변학수외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9, pp.164~180.

34) 전우, <答金教昌\_丁未>, 『艮齋集』 前編續 권3, 『한국문집총간』 333, 한국고전번역원, 2004, p.394. “俗謂學者不可治産 甚可笑也”.

35) “문사들이 대부분 治産에 소홀하다(文士濶於治産)”는 안정복의 지적 역시 당대의 사대부들이 치산행위를 기피했던 저간의 사정을 말해 준다. 안정복, <處士安公行狀>, 『순암집』 권25, 『한국문집총간』 230, 한국고전번역원, 2000, p.317.

36) 이유원, <치산>, 『임하필기』 권8.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고전번역총서 참조. “退溪家書曰 營産等事 人所不能不爲者”.

37) 김건태, 『李滉의 家産經營과 治産理財』,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2011.

외인 담론의 형성 등이 17세기를 지나서야 양반 사회에 정착될 수 있었음<sup>38)</sup>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더불어 바람직한 양반 남성의 조건들 중 ‘치산에 힘쓰지 않는 것’이 주요한 사항으로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이를 이덕무의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가난한 양반이 장삿일이나 품팔이와 같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습속을 초월해서 이런 일을 할 자가 그 누구이겠는가?”<sup>39)</sup>라고 반문하여 ‘양반 남성=不治産業’이라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 상당 정도 팽배해 있었을 말해준다.<sup>40)</sup>

한편, 위의 두 번째 자료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조를 봉숭하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지내는 것’ 또한 당대의 양반들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덕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법제의 시행과 그로 인한 가부장제의 정착으로 가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일한 계보를 확인하는 상장례의 실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치산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장례 치르고 제사 지내는 것에 힘을 쏟았다’는 진술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장례와 제사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 때문인데, 물론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자신은 치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산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찌했을 것인가?

지금 세상의 부인들은 제사 음식을 풍부하게 갖추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

38)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39) 이덕무, <土小節\_事物>, 『청장관전서』 제27~29권.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고전번역총서 참조. “親飢如之何 事苟非奸且濫焉 量其智與力 爲之而已 販可 備亦可 然能超俗習 嗟其誰歟”.

40) 박지원의 <양반전>에는 양반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덕목들이 다소 풍자적인 어조로 나열되는바, 여기에도 “굶주림을 참아내고 추위를 견디며 입으로는 가난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忍飢耐寒 口不說貧)”는 조항이 들어 있다.

로 여겨, 무릇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일가와 이웃 마을에 넉넉히 나누어 먹일 것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집안 재정이 부족하면 반드시 빛을 얻어서 장만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빚쟁이가 빛을 독촉하면서, “빛을 내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서 즉시 갚지 않으니, 어찌 그리도 불효한가?” 라고, 반드시 욕설을 하게 된다. 아, 이런 짓은 참으로 불효로다! 대개 사치스럽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가산을 파탄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찌 조상의 뜻이겠는가?<sup>41)</sup>

이덕무는 당대의 부인들이 제사 음식을 풍부하게 갖추기 위해 빛을 내고 있는 당시의 세태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 하지만 그 역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빛을 내면서까지 제사를 풍부하게 치르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데, 이는 제사가 제사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와 이웃들에게 넉넉히 먹일 것이 요구되는 대사회적 의식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온정주의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을 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근대사회에서 奉祭祀의 의식은 과거 응시와 함께 양반가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며, 양반임을 계보학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부장적 권력을 재생산하는 주요 장치였다.<sup>42)</sup> 따라서 제사 음식을 풍부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손함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곧 양반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탈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었다. ‘不治産業’과 ‘풍성한 奉祭祀 의식’, 그것도 가산을 파탄할 정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유가적 의례의 철저는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러나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조건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선결되어야만 했던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41) 이덕무, <士小節\_祭祀>, 『청장관전서』 제30권.

42) 강명관, 위 논문, p.114.

해결될 수 있는가? 상기한 이덕무의 기록에서 풍부한 제사 음식을 위해 빚을 내는 주체들이 여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아래의 자료들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1] 자성이 집에 있으면서 산업을 다스리지 않았는데, 숙인이 농사일에 힘쓰면서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여 넉넉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직에 오르게 되었을 때 쉬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sup>43)</sup> 자성이 우관이 되었을 때에 녹봉 100문을 집에 보냈는데 숙인이 말하기를 “집에는 50문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여 그 반을 남기고 나머지는 보냈다.

[2] 공이 치산하지 않으니 집이 더욱더 가난해 졌다. 부인이 밤낮으로 裳衣를 팔아 밥 한 그릇을 갖추고 공에게 올렸는데, 술에 남은 밥이 없어 부인이 빈 그릇에 뚜껑을 덮어 마치 있는 것처럼 하여 공이 모르게 하였다.<sup>44)</sup>

[3] 공이 평생 澹靜하여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스리지 않아서 집이라곤 벽만 서 있을 뿐 형편없었고 쌀을 담는 항아리는 자주 비었다. 그러나 부인이 밤낮으로 애를 써서 없는 살림을 잘 꾸려나갔으며, 집안에 돈이 있고 없음을 공에게 들리게 하지 않았다. 奉先에 있어서는 지극히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였으며 산과 못의 여러 음식들 중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었다.<sup>45)</sup>

43) 권만, <鄭子成內子成淑人哀辭>, 『江左文集』 권8, 『한국문집총간』 209, 한국고전번역원, 1998, p.238. “子成居家 不治產業 淑人課農甚力曰 家貧不裕 則居官易以累汚 及子成爲郵官 以常俸百文 送酬家逋 淑人曰 逋爲五十文 留其半而還之”.

44) 황경원, <貞敬夫人宋氏墓誌銘>, 『江漢集』 권18, 『한국문집총간』 224, 한국고전번역원, 1998, 378면. “公不治產, 家益貧, 夫人朝夕鬻裳衣, 具飯一盂, 進於公, 鼎無餘飯, 而夫人猶覆空盂, 若有飯, 不使公知也”.

45) 이수광, <貞敬夫人李氏墓誌銘>, 『芝峯集』 권23, 『한국문집총간』 66, 한국고전번역원, 1988, p.237. “公生平澹靜 不事治產 家常立壁 甌石屢空 而夫人朝夕拮據 善自補綴 不以有無聞公 至於奉先 極其豐腆 山澤諸品 無少缺者”.

[4] 숙인이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을 지녀 행동거지에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도사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문이 쇠했는데 내가 남자로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시집왔을 때 정 부인(鄭夫人)이 매우 흠족해하였다. 익찬공이 평소에 살림살이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숙인이 온 힘을 다해 손님들을 접대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조그만 부족함도 없었으니 익찬공이 이 때문에 가난한 것을 잊었다.<sup>46)</sup>

[5] 나이 열아홉에 내[禮安 李惟樟]에게 시집왔는데 성품이 명민하고 지혜로워 시부모를 모심에 항상 기쁘게 해드렸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수년 동안 편찮으셔서 움직이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숙인이 밤낮으로 부축하면서 보양하는 것이 지극했다. ……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으며, 내가 본디 치산에 능하지 않아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원망한 적이 없었다. (또한) 손님들이 집안에 여유가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르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sup>47)</sup>

앞서 본 남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글들 역시 동일한 목적 하에 기록되었다. 자신의 혹은 누군가의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재구된 여성들의 삶 역시 당대인들이 생각하던 바람직한 여성상이 주된 기준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처절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치산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던 강인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46) 이익, <翊衛司翊贊趙公淑人李氏合窆墓誌銘>, 『성호전집』 권63, 『한국문집총간』 200, 한국고전번역원, 1997, p.85. “淑人幼有至性 動止有度 都事公歎曰吾門戶衰 恨而不男子 及于歸 鄭夫人甚宜之 翊贊公素不善治產業 淑人勤力供賓與祭無欠 翊贊公以之忘其貧”.

47) 이유헌, <亡室全州柳氏墓誌>, 『孤山集』 권7, 『한국문집총간』 126, 한국고전번역원, 1994, p.147. “年十九 歸于禮安李惟樟 性明敏聰慧 事舅姑 甚得其歡心 我先妣寢疾 多年 轉側須人 淑人日夜扶抱 保養備至……祭祀極其誠敬 惟樟素不能治產 饗殮不給 而未嘗有咨怨 客至不計家之有無 而必爲之供具”.

런 여성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상에 의해 쉽사리 치산 행위에 응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모습. 여기서 위의 기록들이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굳이 따지지 않도록 하자. 양반 남성에게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 양반 여성에게는 치산을 잘하여 봉제사와 접빈객이라는 유가적 의식들을 이행하는 것이 당대의 남성과 여성들을 평가하는 주된 덕목이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양반 남성의 치산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자학적 의례의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요구, 이 둘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여성의 적극적인 치산 활동. 이 세 항목의 순차적 연계가 바로 <복선화음가>와 만나는 지점이다.

#### 4. 환상과 적대의 논리 : 모순의 상상적 봉합

① 기실, 가부장적 질서는 가부장에게 그 질서를 유지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가 제대로 유지·작동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의 올바른 판단력과 도덕적 정당성<sup>48)</sup>, 여기에 더하여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각종 유가적 의식들을 시행할 수 있을 법한 일정 정도 이상의 물질 토대가 요구된다. 실질적인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17세기 이후 종법제도가 확산·정착되면서 부모의 재산이 적장자에게 상속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 토대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사회가 설정했던 바람직한 양반상의 모습은 집안의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면서도 봉제사·접빈객으로 대변되는 각종의 유가적 의식들에는 철저한, 그러한 형상이었다. 앞서 이덕무는 가난한 양반이 치산에 힘을 쓰지

48) 강상순, 앞의 논문, p.131.

않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習俗’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치산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자신이 양반임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자신이 양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치산에 종사해야 하는 기묘한 역설의 상황. 이렇진대 가부장제가 내장하고 있는 모순은 중층적이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중범적 의식들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의 치산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치산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에게로 전가되는바, 흥미롭게도 <복선화음가>의 작가는 작품의 초입 무렵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내포한 이와 같은 모순의 지점들을 예기치 않게 드러내고 있다.

곱게귀히 길은남자 / 간구헌 저집이서 비곱하 웃지살가 / 극난하다 혼인이  
이 저디도록 속거는가 / 하로봄이 지년후의 회미를 치형할제 / 비형왔던 오라  
반님 나올보고 흥년말리 / 가계가 이러하니 할릴읍드 도로가자 / 어옛분 우리  
누의 이고성을 웃지하랴 / 잔말말고 도로가자 참마흔자 같길읍다 (...중략...)  
/ 천황씨 서방님은 글밭계 무엇알며 / 디사랑의 늘근식부 다만망영 썬이로다  
(...중략...) / 잇틀사홀 무근손님 말유하기 무슴일고 / 봉제지심 지성인덜 읍  
난밥을 웃지하리

지나친 추정일 수도 있겠으나 부유한 집안의 여식이 가난한 시댁으로 시집간다는 설정은 이러한 모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자의 고민에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부잣집에서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경우는 치산을 통한 부의 축적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동일한 고난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모순, 곧 여성이 시댁의 살림살이를 온전히 전담해야 하는 것의 부당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유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다는 설정은 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임과 동시에 앞으로 겪게 될 여성 주인공의 고난을 암시함으로써 일정한 물적 토대의 소유를 필요로 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그러한 물적 토대가 빈약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극난하다 혼인이이 저디도록 속 거는가라는 주변의 반응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모순적인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일종의 증상으로, 어찌보면 물적 토대가 없는 집안에서조차 가부장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복선화음가>의 작가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푼푼이모와 띄여서 양이모여 관이되고 / 관이모여 빅이되고 빅이모여 천이 되며 / 천이모여 만이되고 만이모여 억이되니 / 압뜰의 눈을사고 뒤뜰의 밧철 사고 / 울을뚫고 담을치고 썩을것고 기와닌다 / 안팎마귀 노신나귀 썩을차져 우름소리 / 줌나을 씨우도다 동남풍이 것듯불면 / 풍경소리 더욱쫓타 각상 중탄 소라반자 / 안닷중문 소설디문 설녕줄이 제격이라 / 왜두지용 목중의 자기흙농 것티노코 / 왜화기왕 당화기의 동너반상 안성유기 / 삼칸광이 너허 두고 슈청헌님 열썩리며 / 반빃한님 시물들은 좌우로 브러섯고 / 올벼낙중 일천석은 동턴광이 싸이두고 / 늦벼낙중 삼천석은 각쳐마름 용정쥬고 / 도지 쌀 일백석은 강동지집이 봉슈호고 / 시찬갑시 탈천양언 오양청이 비식이라 / 날마다 조조의 소을즈바 부모얼 봉양할제 / 시이시이 별미차담 죽역고며 감홍노라

어떠한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겠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순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순과 균열의 지점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만 한다. 언뜻 생각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듯한데, 일종의 혁명과 같이 기존의 이데올

로기 자체를 전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순응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물들을 제시하여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모순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복선화음가>의 작가가 취한 것은 후자의 방법으로, 그는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가부장적 질서가 근원적으로 부조리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는 가정은 끝내 회피한다.<sup>49)</sup>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제시된 부분인바, 주인공이 고된 노동의 끝에 얻게 된 부의 결과물들을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나열함으로써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귀속된다. 艱難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혹은 거기에 좌절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결국 <복선화음가>의 작가 자신이 제기한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은폐하고 억압하기 위한 문학적 환상에 불과하다.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성 주인공이 겪어야 했던 고초에 대한 묘사보다 그녀가 획득한 부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길고 상세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바, “이 칩을 보옵시고 이 칩과 갖치만 허옵시면 웃지 깃브지 안이 허오잇가”<sup>50)</sup>라는 한 이분의 필사기 내용은 여성 독자가 여성 주인공과의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상징계의 네트워크를 능동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sup>51)</sup> 요컨대 “환상은 정확히 적대적인 균열을 은폐하는 방식이다. 바꿔 말해서 환상은 이데올로기가 자기 자신의 균열을 미리 고려해 넣는 방식”<sup>52)</sup>인 것이다.

49) 강상순, 앞의 논문, p.134.

50) <여자행실록>, 나손분, 성무경, 앞의 논문, p.96에서 재인용.

51) 슬라보예 지젝 저,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361.

52) 슬라보예 지젝, 위의 책, p.221.

이러한 점들은 <복선화음가>에 제시된 부의 축적 이후의 과정에 이르러 좀 더 선명해 지는데, 여성 주인공이 부를 축적한 이후 그녀의 남편은 과거에 합격하고<sup>53)</sup> 이후에 승진을 거듭한다.<sup>54)</sup>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등장하지도 않았던 아들 형제가 진사시에 급제<sup>55)</sup>함으로써 주인공의 개인적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복선화음가>의 작자가 제시한 환상의 궁극적 의도가 좀더 분명해 지는 듯하다. 즉, 헌신하고 희생하면[善]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福]는 ‘복선’의 논리와 그것의 결과로서의 환상의 제시를 통해 여성에게 치산의 책무를 권면하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자체 모순, ‘不治産業’과 ‘유가적 의례의식의 철저한 준수’를 은폐함으로써 비록 뼈걱거리는 형태일지언정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企圖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② 좀 더 완전한 가부장제의 완성을 위해 <복선화음가>의 작자는 한 명의 인물을 더 창조한다. 그가 바로 괴퐁어미이다. 그녀는 앞서 본 여성 주인공과는 정반대로 가산이 만금이고, 마당에는 노적이 널려 있으며, 넓은 광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지만 그녀의 좋지 못한 행실 탓에 모든 재산을 날려 버리고 급기야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1] 저근너 일똥어미<sup>56)</sup> 시집스리 흥던말을 / 너도들어 알건이와 다시일너

53) “엇쥬시오 흥넙소리 빅번인지 천번인지 / 빅발노인 우리식부 청여종을 둘러집고 / 숲이읍시 급피오셔 나올보고 흥난말슴 / 이번과거 죽일총방 내남편 니어들리 / 장원급제 희헝호드 효성유복 니며날리 / 지금까지 오리살아 부귀공명 이런경사 / 익달짜 너의식모 습연만더 살아씨면 / 동회동낙 흥련마안 이경스를 혼즈보니”

54) “초입사이 쥬성장영 멀근으로 안번부사 / 성지당상 동니부사 물망으로 평안감사”

55) “아달형지 진사급지 가문도 혁혁하다 / 쌀을길러 출가하니 혼슈범절 치헝이야”

경계흐즈 / 제예시집 올씨의 가산이 십만여지라 / 압노적과 된노적의  
 흥서광의 은케로드 / 신행호여오던날의 가미문의 나셔면서 / 눈쓰고 휘  
 두루며 큰깃침 가리침의 / 차담쌍 허다음식 밤먹으니 고이하다 / 무삼비  
 가 저리곱과 국마시고 썩을집고 / 좌우손님 은제아라 산적겨름 썩여덜  
 고 / 이도쥬고 저도쥬며 혼손으로 갈리쓰더 / 연지분 간디음고 썩물고침  
 입의홀여 / 압갑다 디단초마 괴이하다 어룩더룩 / 트럼하고 방구소리  
 뉘가안이 외면허리

[2] 삼일리 지닌후의 형용더욱 망칙하다 / 드러누어 늦잠자기 비켜서서 이  
 줍기와 / 혼자안즈 군소리와 두리안자 흥니니기 / 남의집정 도을뭇고  
 비워셔 즈부루기 / 문틈으로 손보기와 담의올나 시비구경 / 어른말습  
 토달기와 어린이회 젓빨기와 / 금강산 으지아라 귀경하니 들지로다 /  
 글알기 모로거던 칙은무슴 들고안노 / 안즘안즘 모로거던 거름거리 망  
 측하다 / 다름박질 홀씨와 벌우슴 회안하다 / 으른겨정 홀씨의 쪽박  
 흠박 드러치고 / 승을니여 기치기며 독살부려 그르씨기 / 등단아러 남보  
 기며 기만기만 말뚝기며 / 옷입은제 몇칠인지 나난무슴 흠치난고 / 세슈  
 한 얼굴보소 줄줄리 미친씨가 / 목과귀의 두로잇니 형용도 누쥬하다 /  
 이난은제 득가난지 쏙먹은 기입이라

[3] 안이훈말 지여니여 일가집의 이간하기 / 안이훈말 지여닐제 한말이야  
 오죽하라 / 되난스름 시기하고 불승하니 지미닌다 / 지여편니 츠신보소  
 단일적의 악둑하며 / 간악하니 부동호여 축흐스름 흥을보니 / 제츠신  
 그러하니 셔방인덜 괴일손가 / 금실쥬라 슬푸리와 무병하라 푸닥거리  
 / 돈쥬며 옷쥬어 영호무둥 가라드려 / 아들만코 부귀하게 지성정성

---

56) 본고에서 참조한 판본은 복선화음가의 이본 중 하나인 <孝婦歌>로 이 판본에는 '일똥어미'로 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 괴똥어미로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다수의 사례를 따랐다. 한편 필자가 참고한 이 판본의 경우 임기중이 편찬한 『歷代歌辭文學全集』 20권(여강출판사, 1999, pp.573~607)에 소재해 있어 그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오자나 탈자가 적고 <복선화음가>의 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 판본을 주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비러쥬소 / 산의올나 손제하고 절의올나 불공흔덜 / 제심사 그러하니  
 귀신인덜 도을소야 / 우환이 영첩하니 변승인덜 읍실소야 / 세간사리  
 못흔죄승 절통하고 익달을사 / 저부러셔 저먹년걸 계누리셔 시비홀가  
 / 밤나즈로 별미츄담 사이사이 술씩이라 / 쌀을쥬고 돈얼사고 돈을쥬고  
 고기사셔 / 이웃집 노소덕들 너도쫓츠 나도쫓차 / 이웃인심 못으들가  
 장도쥬고 쓸도쥬며 / 일일이 그러하니 셔방의계 아을셔라 / 귀먹은 시아  
 비난 속고속음 더욱쫓타 / 고기씩을 쥬자하니 걱정듯기 더욱실트 / 쌀아  
 들 슈양집의 돈도가고 쌀도간다 / 지몰이야 억만인덜 그러쿠셔 지당홀  
 가 / 허다시간 노비전답 모리방천 훗터진덜

앞서 치산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화자의 모습이 작자가 축조한 환상이라면 괴똥어미 역시 그 반대의 의미에서 환상이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괴똥어미에게 부여된 면모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이다. 시집온 첫날에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더니 급기야는 트림에 방구까지, 신부에게 기대하는 일반적인 지점들을 훌쩍 뛰어넘는다. 3일이 지난 후의 행동들은 더욱 가관이다. 심술, 불경, 소비, 무식, 게으름, 망측한 행동거지에 못된 성질 등 부녀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 살풀이와 푸닥거리, 무당, 미신, 불공 등 유가에서 금기시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 이러한 행동들의 나열만으로도 그녀의 불온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텐데 작가 자신의 공격적인 비난까지 더해진다. 그렇다면 괴똥어미에게 부여된 온갖 악행들은 앞서 여성 주인공의 서사와 더불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가부장제 자체의 모순을 의도치 않게 드러낸 작가가 그러한 모순의 해결 방식으로 福善이라는 환상의 방식을 택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러한 모순의 근원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환상의 잉여 부분, 곧 실재의 현실을 설명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라는 상징계의 질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실제 사회에서 항상 벌어지개끔 마련인 균열의 조짐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때 요청되는 것이 그러한 균열을 일으키는 상상적 적대자의 존재이다. 본 작품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괴똥어미에게 떠맡겼던바, 괴똥어미는 건전한 사회조직을 부패시키는 이질적인 신체이자 외부적인 요소로서, 가부장제 사회가 하나의 완결되고 동질적인 전체로서 자신의 완전한 동일성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sup>57)</sup>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괴똥어미가 저지르는 악행의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그녀의 타고난 품성 탓으로 돌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악한 개인이 문제이지 가부장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상상적 봉합의 시도. “뭍쓸양화 바든말은 긴사연 다못훈다 / 춤혹하다 일똥어멈 너도접디 보와지야 어미형실 빠헌호고 일똥어멈 싱각하라”라는 작품의 마지막 언급을 감안하면 이러한 작가의 기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지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 5. 남은 문제들

본 논문에서는 <복선화음가>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이 여성의 치산 행위에만 주목하여 이를 봉건주의의 해체적 징후 내지는 근대전환기의 변화된 현상으로 파악해 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조선 후기 들어 강화되어 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연계시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본 작품에 대한 그간의 독법들을 차례대로 살펴본 후, 이 작품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그 자체의 모순을 의도치 않게 드러

57) 슬라보예 지젝(2002), pp.220~222.

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모순의 지점들과 이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에게 치산의 책무가 부과되어 가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와 달리 사대부 남성들의 ‘不治産業’은 양반 남성이 지녀야 할 주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그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 강화된 중법적 질서의 전파에 따라 주자학적 제례의식의 준수 또한 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바, 치산하지 않는 것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자학적 제례의식의 실행은 서로 상충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치산의 책무는 여성에게로 전가되어 갔던 것이다. 4장에서는 <복선화음가>에 드러나는 치산하는 여성의 형상이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에 따라 <복선화음가>는 福善이라는 관념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여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한 자각 없이 치산에 전념케 하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企圖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선화음가>에 나타나는 괴똥어미의 형상을 작자가 의도한 상상적 적대의 응축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은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상상적으로 봉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복선화음가>라는 제명의 텍스트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 작품의 이론적 근거인 ‘복선화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엄밀한 고찰을 시도하지 못했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본 개념은 조선 전기의 경우 역사적 인물·사건에 대한 포폄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었을 뿐, 이를 근거로 현실의 인간들을 권면하는 방식으로는 별반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유가적 사유 체계 내에서 회복을 주관하는 별도의 주재자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보응을 담보하는 ‘복선화음’의 논리가 납득되기 어려웠던 데에서 기인할 터, ‘인과응보’·‘천당지옥설’ 등 불교에서 주창하는 일련의 개념들과 유사하다는 것도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수십여 종이 넘는 이본의 존재와 다양한 지역적 분포는 본 작품이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바, 이는 곧 복선화음의 개념이 조선후기 사회에서 하나의 당위적 사실로 널리 유포되고 있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 개념이 당대의 유가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후기 사회의 저변에 유포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탐색은 <복선화음가>의 유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권만, 『江左文集』, 『한국문집총간』 209, 한국고전번역원, 1998.  
 안정복, 『順庵集』, 『한국문집총간』 230, 한국고전번역원, 2000.  
 어유봉, 『杞園集』, 『한국문집총간』 184, 한국고전번역원, 1997.  
 윤동수, 『敬庵遺稿』, 『한국문집총간』 188, 한국고전번역원, 1997.  
 이수광, 『芝峯集』, 『한국문집총간』 66,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유장, 『孤山集』, 『한국문집총간』 126, 한국고전번역원, 1994.  
 이익,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200, 한국고전번역원, 1997.  
 이재, 『陶菴集』, 『한국문집총간』 195, 한국고전번역원, 1997.  
 이현석, 『游齋集』, 『한국문집총간』 156, 한국고전번역원, 1995.  
 전주, 『良齋集』, 『한국문집총간』 333, 한국고전번역원, 2004.  
 황경원, 『江漢集』, 『한국문집총간』 224, 한국고전번역원, 1998.  
 박지원, 『熱河日記』.  
 이덕무, 『靑莊館全書』.  
 이유원, 『林下筆記』.

### 2. 단행본 및 논문

- 임기중, 『歷代歌辭文學全集』 20권, 여강출판사, 1999, pp.573~607.  
 최태호,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2, p.69.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 6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p.128.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p.128.  
 길진숙, 『뽕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 <용부가>, <복선화음가>, <심청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p.104~105.  
 김건태, 『李滉의 家産經營과 治産理財』,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2011.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p.50.  
 김유경, 『서사가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p.302.
-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p.307.
- 이선애, 『복선화음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p.212.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p.218.
- 이형래, 『<복선화음가>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50 · 54.
- \_\_\_\_\_, 『<복선화음가>의 존재의미와 쟁점적 문제』, 『문창어문논집』 41, 문창어문학회, 2004.
- 이혜진,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장정수, 『서사가사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_\_\_\_\_, 『<복선화음가> 연구』,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p.311.
- 전복규, 『조선후기가사의 근대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32.
- 정출현, 『고전소설 연구의 몇몇 국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187.
- 조자현, 『<복선화음가>의 서술구조에 대한 화쟁기호학적 분석』,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p.397.
- \_\_\_\_\_,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복선화음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 46, 창작과비평사, 1977.
- 최현재, 『조선후기 서사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함복희, 『서사가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슬라보예 지젝 저, 박대진 역, 『이라크: 빌려온 항아리』, 도서출판 b, 2004.
- 슬라보예 지젝 저,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361.
- 아스만 지음, 변학수외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9, p.164~180.

**Abstract**

The Contradiction of Patriarchal Ideology and Imaginary Suture  
An Introduction on research materials of <BokSeonHwaEum-Ga>  
and New reading's preparation

Ha, Yunk-seop

This study raises a doubt about the understanding of “BokSeonHwaEum Ga” which the women’s property management was considered as the symptom of feudal dissolution or the change of modern transition, and intends to relate that to the patriarchal ideology which had been strengthen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is, after look into existing ways of reading to this book sequentially, I suggested that this book showed its contradiction in the patriarchal ideology unintentionally and it needed to figure out its contradiction and solution in Chapter 2. In Chapter 3, I examined the circumstances which assigned the responsibility of property management to women. Unlike early Joseon Dynasty, “not involving in the property management” was considered as significant virtue of nobleman and it was essential to keep his position in reality. But as the strengthened order of clan rules was sprea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y were forced to perform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by the doctrines of Chu-tzu, so “not involving in the property management” was likely to collide with the high-cost performance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by the doctrines of Chu-tzu.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property management was assigned to women more and more to solve this problem. In Chapter 4, I figured out the women’s property management described in “BokSeonHwaEum-Ga” was resulted from these historical circumstances, so “BokSeonHwaEum-Ga” seemed to have the intentional ideology of patriarchy which made women contribute to manage the property without the awareness

of contradiction in patriarchy based on the ideological logic of Bokseon in “BokSeonHwaEum-Ga”. And I concluded it was a imaginary suture to try to cover the contradiction in the patriarchal ideology while understanding the image of Goettongoeumi in “BokSeonHwaEum-Ga” as the conglomerate of social hostility as the author intended.

Key words : <BokSeonHwaEum-Ga>, Patriarchal Ideology, property management[治産], performance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Fantasy, Hostile, imaginary suture

하윤섭

소속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1707동 1005호

전화번호 : 010-9358-5230

전자우편 : yienemy@korea.ac.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2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23일 게재 확정됨.